

도시지역의 가족/친족의례 실태 분석*

An Analysis of the Family/Kinship Rites in Urban Area

계명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전공
교 수 박 혜 인
위스컨신대학교
연구원 조 은 숙

Dept. of Social Welfare, Keimyung University
Professor : Park, Hye-In
Dept. of Psychiatry, University of Wisconsin
Research Associate : Cho, Eun-Suk

〈목 차〉

I. 문제의 제기	IV. 연구결과 및 논의
II. 가족/친족의례의 변천 고찰	V. 요약 및 결론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ctual conditions of family/kin ritual transition and to find out relationships to socio-economic variables. For this purpose, 716 subjects of urban family were interviewed with questionnaires. The results of this study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1. It was discovered the pervasive themes of family/kin ritual transition: westernization, commercialization, socialization, and cultural anomie.
2. In contemporary family/kin rites, traditional structure coexists with external westernized aspects under the influence of industrialization and commercialization. The rites were continued to provide a place where participants reproduce the ideology of patriarchal family group, especially the strong parent-child ties and narrow kin relationships.
3. Respondents who support traditional ritual style are old, lower class, and

* 이 연구는 1997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인문·사회과학 분야 중점영역 연구비를 지원받아 이루어진 연구의 일부임.

Buddhist.

4. Respondents who support westernization and socialization of family/kin rites are young, higher class, and Christian. But family/kin rites are not affected by sex relatively.

◆ key word: 도사가족, 도시친족, 가족의례, 친족의례, 의례실태

1. 문제의 제기

의례(儀禮)는 인간의 생활방식을 이해하는 중요한 항목 중의 하나이다. 의례행동에는 사회적 관계와 상징적 요소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의례를 통해 그 사회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또한 의례는 인간의 가장 깊은 심층 차원에 있는 가치를 나타내는 까닭에, 의례연구가 사회의 기본구조에 대한 이해에 첨경이라고 본다(Turner, 1969:6). 그리고 어느 사회든 문화적으로 정의된 감각을 갖고 있으며, 또 이런 감각을 상징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의례행동은 바로 그러한 감각을 표현하고 강화하는 수단이 된다(Taylor, 1969:114). 이에 대하여 뒤르켐(1961:62)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행동 규범을 도덕적으로 집합표상화한 것이 바로 의례라고 정의하였다. 즉 구성원들은 의례를 통해 서로 동질감을 느끼고 공동의 윤리와 가치를 확인하게 되고, 자기 집단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그리하여 의례는 기존 사회의 가치를 확인시키며 사회질서를 유지시키는 기능을 한다(전경수, 1977:39). 또 의례는 지위의 전환기에 안도감을 제공하며 가족/친족원에게 그 변화를 인식하게도 하고, 심리적 긴장을 해소시켜 주고, 전환의 위기 상황에 있는 인간 상호간의 관계를 재조정해 주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렇게 피곤하게 의례를 치루어야 하나'라는 의문이 제기될 만큼, 긴장을 유발하고 부담을 주는 역기능도 있다. 특히 의례에 나타나는 계

층간의 차이와 성별 차이가 심화되면(김모란, 1994; 박선웅, 1999; 정용선의, 1995)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고 위화감까지 조성하게 된다.

이러한 특징을 지니는 의례는 통과의례와 세시의례로 크게 나눌 수 있다(van Gennep, 1960). 그리고 가족/친족의례"라고 하면, 가족 및 친족성원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의례를 뜻한다. 이른바 전통사회를 지배한 유교적 관혼상제례 이외에도 백일·돌과 같은 출산의례와 회갑·진갑·고회잔치 등의 축하의례는 물론, 가정 안에서 가족원의 안녕을 비는 신앙의례와 계절의 변화에 따라 가정 내에서 행하는 세시의례를 포괄한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족/친족의례 실태는 어떠한가. 우리는 이에 대하여 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가족/친족의례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 작업은, 뒤늦은 감은 있으나 의미있는 일이라고 하겠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전반적인 가족/친족구조의 해체와 재구성에 대한 실태조사의 한 영역으로 수행된 가족/친족의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동안 한국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가족학 분야의 연구들이 가족 변화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작업을 축적해 왔으나 표집의 제한성과 가족에 대한 통합된 시각의 한계 등으로 가족 전반에 나타나는 변화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일정 부분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하여 이 연구는 가족/친족 관련 가치관과 가족관계 변화에 대한 인식, 이혼

1) 의례의 주체에 따라 국가의례, 지역공동체 의례, 가족/친족의례로 나눌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개인도 가족/친족구성원으로 보아 가족/친족이 주체가 되는 모든 의례를 포괄하는 것이며, 편의에 따라 이를 '가정의례' '가정생활의례'라는 용어와 함께 사용할 것이다.

과 재혼에 대한 태도, 사회적 관계망의 특성과 함께 조사한 연구의 일부이다. 즉 가족/친족의례까지 크게 다섯 영역에 대해 한국가족의 변화를 실태조사하여, 그 개요는 보고한 바 있다²⁾. 그러나 개요보고에는 각 영역에 대한 논의와 분석에 한계가 있었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도시가족/친족 의례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통하여 가족/친족구조의 변화를 고찰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 사회는 다양한 변인별로 편차가 있다는 사실은 주지하는 바이나, 이러한 영역간의 차이를 검증하여 서로 어떻게 조화시켜 해결해 나갈지를 탐색하는 작업에는 관심을 집중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가족학분야의 경우 대표성을 갖는 표집을 하기 어려운 개별연구의 한계와 가족관련 기초조사 자료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점, 그리고 조사결과에 대한 논의에 소홀한 점 등이 지적된 바 있다³⁾. 그리하여 이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 가족/친족 변화의 비교 준거로 사용될 수 있는 의례실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그 결과를 가족/친족생활의 다른 영역과 관련시켜 논의함으로써 의례가 가족생활에서 차지하는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가족/친족의례의 변천 고찰

오랜 역사를 지닌 우리 사회에서의 의례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는, 먼저 가족/친족의례의 변천과정을 살피는 일이 중요하다. 특히 가정의례는 전통문화의 소산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가족/친족의례라고 하면 관혼상제⁴⁾의 사례를 뜻하였고, 의례는 오늘날 까지도 우리사회의 생활방식을 이해하는 주요한 항

목의 하나이다. 여기에서는 조선시대의 예교화 이전과 이후, 그리고 산업화 이후로 나누어 고찰한다.

1. 가족/친족의례의 유교화 과정과 가례의 보편화

한 민족의 전통은, 고대국가 시점부터 살펴볼 수 있는데, 가례 도입 이전의 문화, 즉 유교문화와 별도로 전승되어 오는 민속문화 속에는, 우리나라 재래의 고유문화 요소가 전해져 온다. 이른바 한국문화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토착신앙, 고유신앙의 신념체계와 관련되는 가정의례의 잔재는 출산의례의 삼신신앙의 예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토착문화는 제 2 단계로 고려시대의 불교문화와 융화를 이룬다(박혜인, 2001a). 화장하는 장례풍습이나 백중제사와 같은 것이 그 예이다. 그후 제 3 단계가 조선전기의 예교화과정이다. 지배층의 숭선수법으로 토착신앙과 불교의 융합 위에 유교가 과도적 혼합문화 상황을 이루다가, 제 4 단계에서는 유교적 관혼상제가 일상을 지배하는 가례의 보편화시대가 되는데, 곧 조선조 17세기 중엽 이후에 해당한다(최재석, 1987).

2. 가족/친족의례의 식민화·서구화과정

그러나 유교적 의례도 일제식민지시대·광복·한국전쟁을 겪으면서 격변하게 되었다. 한말의 여러 가지 신종교가 등장하고 또한 천주교와 개신교가 유입되면서 유교적 가정의례는 혼란기를 맞이하여, 일제식민지문화의 영향과 서구문화의 영향을 동시에 받게 되었다. 더구나 일제의 식민화정책이 점차 본격화되면서 1934년 조선총독부는 《의례준칙》을 발표

2) 육선화·김주희·박혜인·신화용·한경혜·고선주(1998). 가족/친족 구조의 해체와 재구성 I : 서울시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36(11), 157-182.

3) 「가족과 미래환경」을 주제로 한 1998년 『한국가족관계학회 춘계학술대회』(5월 29일)에서 토론자 은기수선생(한국정신문화연구원)은 이러한 사항과 함께 자료의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고 제기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많은 참석자들이 문제 인식을 함께한 바 있다.

4) 관혼상제는 관례·혼례·상례·제례의 사례를 뜻하고, 통과의례는 출생의례·성년식·결혼식·장례식의 네 단계를 뜻한다. 둘 다 인간이 생애에서 거쳐야 할 관문을 뜻하는 점에서 일치하나 엄격히 보면 서로 구별되어야 한다. 유교의 규범인 사례에는 '출생의례'가 빠진 데 비해, 주로 서구사회에서 통용되는 통과의례의 개념에는 '제례'가 빠져있기 때문이다.

하였다. 당시 의례준칙의 공포는 식민통치를 위해 농촌을 재편해가는 수단이었으며(박혜인, 1991:52), 의례 간섭을 통해 우리 민족의 공동체의식을 와해시키려는 의도였다⁵⁾.

이 시기에 서울에 천주교회가 설립되어 혼배성사가 등장하였고, 감리교회가 건립되면서 예배당혼례가 시작되었다. 이것이 서구화의 영향을 받은 혼례 변화의 효시이다. 여기에서 가정의례의 사회화가 비롯되었다(김시덕, 1995:429). 이른바 신식의례는 지식층이 주도하여 서양에서 직접 들여오거나 일본을 통해 유입하였다. 당시는 외래문화이면 무조건 선진적이고, 전통문화이면 곧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도식이 지배하는 세태였다. 그리하여 일본문화, 서구문화를 무분별한 수준에서 모방, 수용하여 구식과 신식의례가 빠른 속도로 문화복합을 이루었다. 급변하는 시대 흐름에서 “남들은 다 이렇게 한다더라”는 식의 ‘가상 원전’에 의지하여(송도영, 1995:344), 자기 정체감을 잃고 외래 의례문화에 편승하였다. 미군정기와 한국전쟁을 치루며 가족/친족의례는 불가피한 상황을 맞는다. 의례를 논하기 어려운 절박한 시대였다. 그리하여 한국전쟁 위기를 경과하며 의례는 계층별로 다양하게 변화·굴절되었고, 이어서 산업화의 추세에서도 또 다른 변형이 속출하였다.

3. 산업사회 가족/친족의례 변화의 성격

1961년 재건국민운동본부는 《표준의례》를 제정하였다. 그후 1969년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로, 또 1973년에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로 개칭하였고, 1980년에 전문을 개정하면서 가정의례의 획일화를 강요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시도와 관계없이 가정의례는 산업자본주의의 영향을 급속하게 받으면서 식민지시대 이후의 왜곡된 변화가 더욱 심화되는 형태로 변해 갔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정의례는 사회화되면서, 점차 대행기관 및 대행업체가 등장하였다. 또 종교기관이 적극 가정의례에 참여하였으며, 가정의례의 상품화, 상업주의화도 가속되었다. 외형적으로 서구양식화를 초래하여 점차 전통적인 민속의례는 소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인 변화와 달리, 의례의 내면구조는 전근대적 봉건성을 기본으로 유지하고 있다. 남성 위주의 의례관행이라는 점에서 의식과 행동 간에 문화지체가 나타나고, 일부 과시적이고 소비문화에 치우친 의례의 혼란상은 가정의례의 탈규범화를 초래하기에 이르렀다(박혜인, 2001a).

4. 선행연구 고찰

그러나 가족학 연구분야에서는 가족/친족의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가정의례에 대한 각 분야의 연구를 개관하면, 가족제도사 연구를 위해 접근한 김두현(1949), 최재석(1987)의 연구 이외에 예학의 입장(고영진, 1995)과 예와 법제와의 관계(이재룡, 1995), 사회사적 관점(안호용, 1993; 장철수, 1984, 1995)에서 고찰한 연구 등이 있다. 또한 민속문화의 잔재로서 가정의례를 고찰한 민속학적 접근(박혜인, 2001b)과 통과의례의 상징적 의미를 문화인류학적으로 접근한 연구(송도영, 1995; 전경수, 1977) 등에 불과하다. 한편 정부시책을 지지하기 위하여 계도적이고 실용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관변 연구(김성일, 1996; 이필도, 1999), 그리고 의례의 일부만을 다룬 연구(박선용, 1999; 박혜인, 1990; 장현섭, 1996; 조관연, 1997, 1998; 최준식, 1996)가 대부분이어서 선행연구와 직접적인 비교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⁶⁾.

- 5) 이러한 식민지 통치 이념이 민간층에까지 깊은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렵다(최길성, 1989, “일본식민지 통치 이념의 연구”. 일본학연보2, p.107)는 연구가 있으나 과연 그러한지에 대하여는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 6) 그밖에 특정 종교를 선교하기 위한 입장에서 접근한 의례연구와, 시대변화의 맥락과 관계없이 “전통사회의 家禮로 복귀하자”는 복고주의 접근도 발견되었으나 이러한 연구는 선행연구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이 연구에서는 가족/친족원이 일생동안 지위를 변화시키며 치루는 출생의례부터 사후의 제례까지를 포함하는 통과의례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본래 농경 사회의 소산인 세시의례는, 급격한 산업화에 따라 약화된 상황이므로 실시정도만 조사하였다.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 1) 도시지역의 가족/친족생활 의례관행 실태와 의례에 대한 태도의 전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 2) 도시지역의 가족/친족생활 의례관행 실태와 의례에 대한 태도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과 분석

이 연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10대에서부터 60대까지의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이다. 이를 위해 통계청에서 1996년에 발행한 서울통계연보⁷⁾를 토대로 비례적 층화추출을 통하여 성(性), 연령, 지역, 교육수준, 결혼지위를 고려한 720개의 표본을 추출하였다. 1997년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10대부터 60대에 이르는 남녀 각 10명씩, 총 120명을 대상으로 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문항을 수정한 후에 1997년 12월 20일부터 1998년 1월 10일까지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최종 수집 결과 총 716명의 질문지를 회수하였다. 그리고 양적 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2000년 1월 22일부터 2월 19일 사이에 20대에서 60대까지 각 연령층별 남녀 한 사례씩 심층 면접의 질적조사⁸⁾를 실시하였으며, 이 자료는 결과고찰에 반영하였다. 이 연구는 빈도와 백분율을 통해 가족/친족의례의 전반

적인 경향을 분석하였고, 분할표 분석방법으로 관련 변수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3. 조사항항의 구성과 타당도

가족/친족의례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의 변화와 특성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성, 연령, 계층, 종교별 비교를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전체적인 통과의례 실태와 그에 대한 태도를 묻는 설문지를 단일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선행연구와 기초적인 문체제기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단일문항들은 가족학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6인의 공동연구원들의 2차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안면타당도(jury opinion & face validity)를 검증한 후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다시 2차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적합도를 평가한 후 문항을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문항을 선택하였다.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응답자의 일반적 성격은 <표 1>과 같다. 남성이 51.5%이며 여성이 48.5%이며, 10대를 제외한 636명 응답자의 교육수준을 보면 초졸 이하가 7.5%, 중졸 이하가 9.5%, 그리고 고졸 이상이 44.4%,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이가 36.9%이었다. 응답자 가족의 소득의 전체 평균은 266만원 정도이다.

전체 응답자 중에서 미혼자가 30.7%이며, 초혼인 경우가 66.2%이었다. 이 연구의 경우에 60대를 제외하고는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는 자를 조사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므로 이혼이나 별거한 경우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응답자들의 종교를 보면, 기독교가 가장 많아 37.2%이며, 천주교가 11.7%, 불교가 21.1%, 그리고 무종교가 27.8%이었다.

7) 1996년에 출판된 제36회 [서울통계연보]는 1995년 자료를 토대로 서울시의 인구분포를 집계한 것이나 혼인상태별 인구는 1990년 자료가 제시되어 있어 1990년 분포에 따라서 표집을 하였음.

8) 질적조사는 가족/친족가치관, 가족관계 변화, 그리고 가족/친족의례에 관련된 공동연구자 3인이 함께 참여하여 녹음을 병행하며, 비구조화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특성	집단	빈도(%)	특성	집단	빈도(%)
연령	10대	78(10.9)	종교	기독교	266(37.2)
	20대	202(28.3)		천주교	84(11.7)
	30대	188(26.3)		불교	151(21.1)
	40대	125(17.5)		무교	199(27.8)
	50대	86(12.0)			
	60대	35(4.9)			
성별	남성	368(51.5)	성장배경	도시	449(62.9)
	여성	344(48.5)		농촌	265(37.1)
교육수준	초졸	47(7.5)	가족형태	핵가족	577(80.0)
	중졸	59(9.5)		부계확대가족	100(14.0)
	고졸	318(46.1)		모계확대가족	28(3.9)
	전문대졸 이상	254(36.9)			
소득수준	150만원 이하	79(11.2)	직업	주부	154(21.8)
	250만원 미만	265(37.6)		학생	125(17.6)
	350만원 미만	220(32.0)		은퇴·무직	35(5.0)
	500만원 미만	78(11.1)		전문기술·경영	49(7.0)
	평균 소득수준 265만원			사무직	174(24.7)
				생산·기능·서비스	27(3.9)
결혼지위	미혼	220(30.7)	주거형태	아파트	247(34.6)
	초혼	474(66.2)		단독주택	119(16.7)
	재혼	4(0.6)		상가·다가구	120(16.8)
	사별	18(2.5)		임대주택	25(3.5)
				연립·빌라	200(28.2)

IV. 연구결과 및 논의

먼저 각 의례의 실태를 살펴본 후, 각 의례의 실태가 사회인구학적 변인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할표분석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⁹⁾. 생일의례, 성인식 관련 항목과 의례에 대한 태도는 미혼자의 응답까지 포함하여 분석하였고, 출산의례와 환혼상제례는 의례를 경험한 기혼자를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1. 가족/ 친족의례 관행에 대한 전반적 경향

1) 통과 의례

(1) 출산의례 중 가장 보편적으로 행해지는 것은 산모의 미역국 섭취라고 할 수 있다. 백일잔치를 하는 경우도 7할을 넘었다. 돌잔치의 보편성에 비해 돌잡이를 하는 경우는 5할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백일기도나 외갓집 첫나들이에 붉은 고추를 넣고가는 일, 삼신에게 빌기 등의 민간신앙 행위는 소

9) 이 보고서에서는 분량이 지나치게 많아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분할표 분석을 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우만 변수별 차이 부분에서 언급하도록 한다. 각 결과의 간략한 서술을 위해 χ^2 의 값과 통계적 유의미성 정도만을 제시하도록 한다. 통계적 유의미성 정도는 * $p < .05$, ** $p < .01$, *** $p < .001$ 로 나타낸다.

수만이 행하였다. 민속문화가 단절된 도시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는 있으나,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백일잔치, 돌잔치를 하는 비율이 높았다<표 2>.

로 의논하여 했다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일반적인 결정이었을 경우에는 부모의 결정에 따른 경우가 훨씬 많아, 여전히 결혼식이 자녀 개인의 의례

<표 2> 출산 및 생일의례

의례의 종류	실시정도: 빈도(%)
출산의례	미역국 437(91.0), 백일잔치 353(73.5), 돌잡이 225(46.9), 삼칠일 금기 143(29.8), 삼신에게 빌기 45(9.4), 백일기도 24(5.0), 첫 나들이에 붉은 고추 16(3.3)
생일의례	미역국 412(86.0), 케이크 340(71.0), 선물 283(59.1), 생일떡 126(26.3), 외식 108(22.5)

(2) 생일의례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은 미역국을 먹는 것과 케익을 준비하는 것이다. 반면 생일떡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소수에 불과하였다. 점차 케익이 생일떡의 자리를 대체한다고 보인다. 생일선물도 6할 정도의 사람이 생일의례로 지적하고 있다. 그밖에 친구들을 불러 생일잔치를 해주거나 기도나 예배를 드리는 예가 있다. 미역국의 항목을 제외하면, 생일의례의 서구화가 빠르게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표 2>.

(3) 성인기의례에 대해서는 ‘어른’이 되는 시점을 어느 사건을 기준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는 질문을 통해 우회적으로 조사하였다. 남자에게는 군복무가, 여자에게는 결혼이, 가장 의미있는 성인 통과의례라고 여기는 경향이였다. 그리고 20세라는 법적 성인 연령기준에 대해서는, 남녀의 경우 모두 성인 시점으로 보는 비율이 2위를 나타냈다<표 3>.

또한 여자의 경우 결혼과 출산같은 가족생활 관련 사건이 성인기진입을 뜻한다고 여기는 비율이, 남자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인다. 이처럼 다양하게 분산된 경향을 볼 때, 오늘날 우리나라는 성인기 시점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성을 결혼, 출산과 연관시키는 것을 통해서도 여전히 보수적 관념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4) 혼인의례 중에서 보편적으로 행해진 것은 폐백과 청첩장, 그리고 신혼여행, 피로연 등이였다. 함잡이를 한 경우는 6할 정도였으며 3-4할 정도의 사람들은 약혼식이나 야외촬영, 답례품 등도 하였다<표 3>. 혼례 절차와 비용의 결정방법은 부모자녀가 서

라기보다는 집안의 의례임을 보여준다. 뿐만아니라 여기에는 교육기간이 연장되고 취업이 어려워지고 또 그에 따라 자녀들의 경제적 독립이 용이하지 않은 오늘날의 사회 여건이 반영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5) 장례 의례는 절차의 주도자, 장례 장소, 상주의 복장을 조사하였다. 응답자의 집안에서 가장 최근에 치뤄진 장례절차를 기준으로 답하게 하였다. 먼저 장례절차의 주도자는 상주(49.3%)와 가족 및 친족원(33.2%)인 경우가 대부분이였다. 그러나 장례업 전문가(12.4%)가 주도한 경우도 무시 못할 정도의 비율을 나타내, 장례절차가 상품화되어가고 있는 추세를 엿볼 수 있게 한다. 장례의 장소는 자택(47.7%)인 경우보다 병원영안실(50.0%)인 경우가 더 많아, 이미 자택에서의 전통적 장례가 도시생활에서는 유지되기 힘든 것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남성의 상복으로 가장 보편적인 것은 검은색 양복과 삼베완장으로 나타났다. 삼베상복과 굴건, 삼베리본, 요질, 지팡이, 행전 등의 전통적 상복사용은 3-4할 정도였다. 서구적인 상복차림인 검은색 양복의 사용이 64%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 대략 남성의 상복은 서구적인 형태와 전통적 형태가 6 : 4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여성들의 경우 가장 보편적인 상복은 소복과 머리리본이였다. 지팡이와 요질 등의 전통상례복장을 사용한 경우는 2할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검은색의 서구식 상복의 착용은 1할 정도에 지나지 않아 남성의 검은색 상복착용이 6할을 넘는 것과 비교할 때, 여성의 경우는 낮은 비율을 보인다<표 4>.

〈표 3〉 성인기의례와 혼인의례

의례의 종류	구분	실시정도: 빈도(%)
성인기의례 (어른이 되는 시점)	남자	군대제대 231(32.4), 만20세 125(17.5), 결혼 113(15.8), 고졸 89(12.5), 대졸 73(10.2), 취직 40(5.6), 자녀출산 34(4.8)
	여자	결혼 178(25.0), 만20세 153(21.5), 대졸 119(16.7), 고졸 116(16.3), 자녀출산 101(14.2), 취직 40(5.6)
혼인의례	혼례절차의 종류	폐백 444(90.2), 청첩장 431(87.6), 신혼여행 399(81.1), 피로연 367(74.6), 합집이 274(55.7), 약혼식 178(36.2), 야외촬영 174(35.4), 답례품 138(28.0)
	결혼식 절차와 비용 결정방법	부모자녀 의논 285(58.0), 부모의 결정 156(31.8), 자녀 결정 26(5.3), 사돈집의 요구 12(2.4)

(6) 제사의례에서 먼저 제사의 실시정도를 보면, 차례와 기제사는 8할 이상이 제사를 지낸다고 응답하여 여전히 제사문화가 보편적인 생활의례로 존속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문중이 주체가 되어 치러지는 묘사의 경우는 4할 정도의 응답자가 행하였다. 개별 가정에서 행하는 제사에 비해 절반 정도의 비율이지만 적지 않은 시행이라고 할 수 있다.

제사를 실시형식별로 나눠서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간소한 유교식'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여전히 '전통적 유교식'을 고수하는 경우도 21.4%에 이르러 유교적 형식의 제사를 지내는 전체 비율은 62.6%에 이르렀다. 제사는 종교적인 측면을 지니는 의례이므로 각 종교별 제사형식이 제시되어 있는데, 유교식 다음으로 높은 비율은 기독교식 추도식이었다. 기독교인의 증가라는 우리사회 변화의 일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절제사도 1할 정도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기관의 제사대행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은 심층면접에서도 확인되었다.

기제사의 형식에서 먼저 기제사의 봉사범위는 전통적 4대봉사를 하는 경우는 23.2%에 그쳤으며 3대 혹은 2대봉사를 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기제사 참가자의 범위를 보면 4촌 이내의 친족들이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동거가족만 제사를 지내는 경우는 아주 적었다(4.4%). 그러므로 범위는 축소되었다 해도 제사의례는 여전히 친족 모임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가자의 범위가 전통적 친족개념인 8촌까지 포괄하는 경우는 적었고, 형제자매나

4촌이 제사에 모이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기제사 시간은, 돌아가신 날을 기준으로 전날 혹은 당일 어두워진 후에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가족들의 편의에 맞춰' 제사시간을 조절한 경우도 23%나 되어, 도시사회에서 제사의 형식이 변모해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민들의 경우 제사 복장에 있어서는 보다 많이 현대화 경향을 보였다. 양복이나 평상복을 단정하게 입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와같이 살펴볼 때, 제사가 여전히 지속된다는 측면에서는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행하는 절차와 형식에서는 대폭 간소화된 경향이 확인되었다.

일반적 제사형식으로 제기 사용 관행을 보면, 별도의 제사용 제기를 따로 구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68.6%에 이르러 평소 사용하는 그릇을 사용하는 경우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표 4). 제사음식의 경우는 모든 음식을 집에서 마련하는 경우가 아직은 가장 많았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일부만 구입할뿐 대부분의 음식을 집에서 마련한다고 응답하였다. 제사복장이나 시간 등이 현대식으로 융통성있게 변화한 것과 달리, 제수의 경우는 여전히 가정에서 마련하고 있었다. 신위(神位)나 지방(紙榜)의 경우도 전통의례대로 한자로 쓰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 부분도 전통이 그대로 지속되는 의례형식이라고 하겠다.

제사 때 절을 올리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조사한 결과 남자만 절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참석한 남녀 모두, 혹은 남자와 직계자녀가 함께 절

〈표 4〉 상례·제례·문중행사·의례비용조달방법·세시의례

의례의 종류	구분	실시 정도 빈도(%)
상례	남자 상주복장	검은양복 312(64.1), 삼베완장 292(60.0), 삼베상복 212(43.6), 삼베리본 181(37.2), 굴건 170(35.0), 행전 169(34.8), 지팡이 150(30.9), 요질(새끼줄) 85(17.5), 화려하지 않은 평상복 26(5.3), 검은 한복 9(1.9)
	여자 상주복장	소복 424(87.1), 머리리본 305(62.6), 요질(새끼줄) 77(15.8), 지팡이 70(14.4), 검은 양장 60(12.3), 화려하지 않은 평상복 26(5.3), 검은 한복 13(2.7)
제례	실시형식	간소한 유교식 200(41.2), 전통유교식 104(21.4), 기독교추도식 81(16.7), 절제사 57(11.8), 천주교식 제사 22(4.5), 안 지냄 16(3.3), 기타 종교의식 4(0.8)
	제사종류	차례 411(84.0), 기제사 397(80.9), 묘사 200(40.9)
	봉사범위	3대 130(31.7), 2대 123(30.0), 4대 95(23.2), 부모 56(13.7)
	참가자 범위	4촌 이내 162(39.3), 형제자매 115(27.9), 6촌 이내 53(12.9), 가능한 모두 44(10.7), 동거가족 18(4.4), 8촌 이내 18(4.4)
	기제사 시간	돌아가신 당일 새벽 123(29.9), 돌아가신 전날 해진 뒤 122(29.6), 가족이 모일 수 있는 시간 95(23.1), 돌아가신 당일 해진 뒤 60(14.6)
	기제사 복장	깨끗한 평상복 249(60.3), 양복 정장 139(33.7), 한복 정장 13(3.1), 천담복(옥색 제사 한복) 7(1.7)
	제기마련	따로 마련해 두고 사용 192(42.9), 평상시 사용하는 그릇 128(28.6), 물려받은 제기 사용 115(25.7)
	제사음식	집에서 마련 271(60.4), 만들기 어려운 것만 구입 165(36.7), 대부분구입 4(0.9), 전부구입 1(0.2)
	신위나 지방 쓰는 법	전통의례대로 한자로 씌 278(62.3), 사진사용 63(14.1), 전통의례대로 하되 한글로 씌 41(9.2), 가정의례준칙에 따름 33(7.4)
	절 올리는 사람	남자만 206(43.0), 참석한 남녀 모두 97(20.3), 남자와 직계 자녀 77(16.1), 제사지내지 않음 50(10.4), 남자와 며느리들 19(4.0), 남자와 종부 8(1.7)
문중행사참여	집안 계 219(44.4), 묘사 200(40.6), 종친회 156(31.6), 참가하지 않음 132(26.8), 족보발간 118(23.9)	
의례비용 조달 방법	혼례식	저축, 저금 450(47.1), 부조금 251(26.3), 계 150(15.7), 용자 64(6.7), 문중재산 10(1.1), 사채 4(0.4)
	상례	저축, 저금 379(40.1), 부조금 348(36.8), 계 84(8.9), 문중재산 48(5.1), 용자 17(1.8), 사채 12(1.3)
	회갑, 칠순	저축, 저금 426(46.3), 부조금 237(25.8), 계 157(17.1), 문중재산 24(2.6), 용자 13(1.4), 사채 3(0.3)
	제사, 차례	저축, 저금 402(47.8), 계 98(11.7), 부조금 85(10.1), 문중재산 80(9.5), 용자 9(1.0), 사채 1(0.1)
세시의례	설날 떡국 475(96.2), 추석 송편 439(88.9), 정월대보름(오곡밥, 나물, 부럼깨기) 394(79.8), 복날 삼계탕과 수박 319(64.6), 동지팥죽 220(44.5)	

을 올리는 경우도 상당수 있어, 전통적인 남성 위주의 제사의례에서 상당부분 변화하였음을 볼 수 있다. 한편 종부나 며느리들만을 남자들과 같이 절하도록 하는 경우는, 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전통사회의 양반가에서 한 집안의 며느리라는 지위로 여성의 정체성을 확인시키던 양상과는 거리가 멀다. 그밖에 절을 올리지 않는 경우가 높은 비율을 나타냈는데 이는 기독교신자의 비율이 적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기에서도 전통사회의 규범이 와해된 이후,

아직 이를 대체할 규범이 정립되지 못한 가족/친족의례의 과도기적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세대와 성별의 질서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원칙이나 준거를 갖지 못한 이른바 가족문화의 아노미를 심층 면접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7) 문중행사 참여정도에서는 집안계모임과 묘사(시제)에 대한 참석이 가장 활발하였고, 종친회나 족보발간에도 2-3할 정도의 응답자가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약 3할 정도의 응답자들은 문중행

사에 전혀 참가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표 4). 도시에서 태어난 세대가 문중을 주도해야 할 시기에는 어떻게 변화될까. 이러한 세대 간의 대조적인 현상은 후속 변인별 고찰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8) 의례 비용조달 방법을 보면 가장 보편적인 조달방법은 저축이나 저금이었다. 그 다음이 부조금인데, 제사를 제외한 일회성 의례에서 부조를 통해 비용을 마련하는 경우는 25.8-36.8%에 이르고 있다(표 4). 혼례식 비용마련을 위해서는 용자를 얻는 비율이 다른 의례에 비해 훨씬 높았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인륜지대사로 여기는 전통에 따라 혼례 비용이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었다. 문중재산이 동원되는 경우는 제례가 가장 많았고, 상례에도 문중의 도움을 얻는 경우가 비교적 많다.

2) 세시의례에서 가장 보편적인 것은 설날에 세시음식인 떡국을 먹는 일이었고, 추석에 송편을 먹는 일이었다. 그리고 정월대보름과 한여름 삼복의 복날 의례 등도 상당히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팔죽을 먹는 동지의례를 시행하는 경우는 44.5%에 머물렀다(표 4). 세시의례는 농경사회 배경에서 비롯된 풍습이지만, 현재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또 상업주의의 상품 개발에 따라 세시의례의 새로운 전승은 부추겨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세시의례는 계절에 부응하여 생활에 리듬을 제공하는 기능적 측면이 조상의 지혜로서 부각될 수도 있다고 본다. 또한 녹두부침이나 만두, 김치, 식혜 등 의례와 관련된

전통 음식이 가족문화로 전승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 또한 심층면접에서 확인되었다.

2. 가족/친족의례에 대한 태도

1) 중요시하는 의례를 1순위에서 3순위까지 조사한 결과 7할 가까운 사람들이 혼례를 가장 중요시하는 의례 1순위로 응답했다. 상례는 2순위 혹은 3순위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그밖에 회갑잔치와 기제사 등이 지적되었다. 중요한 의례의 1순위로 '돌잔치'를 지적한 사람이 7.5%인 점도 주목된다(표 5). 그밖에 중요하다고 여긴 의례는 대학입학식, 대학졸업식, 차례 등이 있었다. 사회변화에 따른 가족가치의 변화를 일부 엿볼 수 있지만 여전히 혼상제례를 중시한 전통적 관념이 지배적이었다.

2) 희망묘제는 1순위는 가족묘지(선산)였다. 그러나 희망묘지형태의 1순위로 지적된 것 중에는 화장과 종교기관 묘지에 대한 희망도 적지 않았다. 2순위로는 27.7%의 사람이 공원묘지를 지적하였다(표 5). 화장 후 납골당에 안치하는 것은 화장 후 뿌리는 것에 비해 선호도가 떨어졌다. 고려시대에 보편화된 화장문화가 조선시대에 단절되면서 매장을 선호하는 전통으로 바뀌었지만 다시 화장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 그런데 심층면접 결과 흥미로운 것은, 본인은 화장하겠지만 부모까지는 매장하길 바라고 있고, 이를 곧 효의 표현이라고 인지한다는 점이

〈표 5〉 의례에 대한 태도

의례에 대한 태도	응답 분포: 빈도(%)	
	중요시하는 의례	1순위
	2순위	장례식 228(32.8), 회갑잔치 162(23.3), 결혼식 131(18.8)
	3순위	장례식 209(30.2), 회갑잔치 127(18.4), 기제사 106(15.3)
희망 묘제	1순위	가족묘지 385(54.3), 화장 후 뿌리기 100(14.1), 종교기관묘지 83(11.7),
	2순위	공원묘지 172(27.7), 화장 후 뿌리기 162(26.1), 종교기관묘지 105(16.9)
아들이 없을 경우 희망 제사 방식	안 지냄 390(54.7), 절, 성당에서 지냄 166(23.3), 외손봉사 130(18.2), 양자입양 14(2.0)	
제사 제도 전망	차츰 사라질 것 259(36.2), 종교기관 대행 151(21.1), 장남제사계속 138(19.3), 아들·딸이 나누어 맡음 97(13.6), 아들끼리 나누어 맡음 61(8.5)	

었다.

3) 제사방식은 아들이 없을 경우에는 과반수 이상이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고 응답해, 제사를 위해 입양했던 유교 규범에서 벗어난 태도를 보인다. 입양해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의견은 소수였다. 그리고 절, 성당과 같은 종교기관이 제사를 대행하도록 하겠다는 의견도 상당수 있었으며 딸을 통한 외손봉사를 희망한 사람도 18.2%에 이르렀다(표 5). 양자관념의 소멸과 같이 가족/친족에 대한 태도에서 현저하게 변화된 측면이 있는 반면에 변화에 완만한 측면도 함께 나타나 일괄적으로 논의하기보다는 사안별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양자제도가 사라진 것은 사후관념이 낮은 도시인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다. 뿐만아니라 양자문제는 재산분배, 상속과 연관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기피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본다.

4) 제사제도에 대해서는 '제사풍속이 미래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전망에서 제사제도가 차츰 없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은 종교기관이 대행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이 두 의견은 합하면 57.3%에 이른다. 과반수의 사람들이 제사가 자녀세대의 임무로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즉 현대인들은 가족과 친족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의례인 제례가 쇠퇴하게 되리라고 전망하였다. 과거와 같이 제사가 장남의 의무로 여전히 남을 것이라는 전망은 19.3%에게서만 나타났다(표 5). 이러한 특징 역시 현실을 중시하는 도시인의 가치관을 반영한다고 보인다.

3. 변인별 가족/친족의례 관행과 태도 고찰

1) 연령별 가족/친족의례 관행과 태도

(1) 통과례

출산의례의 실태에서 연령별로 차이를 나타낸 의례는 '백일잔치'였다($\chi^2=10.41^*$). 대체로 젊은 연령층이 자녀의 백일잔치를 많이 행하였다. 즉 백일잔치는 최근으로 올수록 더 빈번히 행해지는 출산의례로 볼 수 있다. 경제적인 여유와 예전보다 자녀를 더 챙기는 가치관의 반영이라고 보인다. 출산의례는 윗

세대 부모의 협조와 조언 하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세대간 전달이 원활하여, 다른 의례에 비하여 세대차이가 적게 나타났다.

생일의례에서 생일떡을 하는 비율은, 30대와 60대가 더 높고, 20대와 40대는 낮게 나타났다($\chi^2=11.45^*$). 케익을 준비하는 비율은 20대를 제외하고는 젊은 연령층이 더 높게 나타났다($\chi^2=38.09^{***}$). 20대의 경우는 자녀의 연령이 어려 생일잔치를 준비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젊은 연령층에서 생일선물을 하는 비율이 높은 경향이었다($\chi^2=23.66^{***}$). 케익과 선물같은 서구적 생일의례는 젊은 연령층이 선호하였다. 외식을 하는 경우는 30, 40대에서 두드러지게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60대의 경우는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chi^2=15.60^{**}$). 생일날의 외식은, 자녀가 어린 20대보다는 30-40대층일 때 가장 빈번하게 행하였다.

연령별로 남녀의 성인기 시점에 대해 뚜렷한 견해 차이를 나타냈다. 남자의 성인기 시점에 대하여, 연령별 차이가 유의미했다($\chi^2=64.31^{**}$). 10대는 고교졸업이나 군대제대를, 30대는 만 20세를, 50대는 대학졸업을, 60대는 대학졸업과 결혼을 남자의 성인기 시점으로 보는 경향이었다. 성인기 시점의 당사자들인 20대들은 전체집단이 나타내는 대체적인 경향을 수용하고 있었다.

여자의 성인기 시점에 대한 생각도 연령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chi^2=67.46^{***}$). 10대의 견해가 가장 독특했는데, 이들은 고교졸업과 만 20세가 성인기 시점이라는 견해였고, 결혼과 출산이 성인기 시점이라는 데 대해서는 낮게 응답했다. 취직할 당사자들인 20대들은, 정작 취직이 성인기 시점이라는 생각에 가장 낮은 응답을 하였다. 그리고 50대들이, 출산이 여성의 성인기 시점이라는 견해를 갖지 않는 것도 특징적이었다. 결과적으로 성인기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없이 다양한 편차를 드러냈고, 특기할 사항은 성인기에 진입하는 20대가 성인기 시점이 취업이라는 항목에 저항하는 경향이었다. 이것은 취업스트레스의 반영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가지 혼인의례과정에서 연령별 차이가 나타났다. 청첩장($\chi^2=61.50^{***}$), 야외촬영($\chi^2=126.71^{***}$),

피로연($x^2=34.86^{***}$)과 신혼여행($x^2=113.45^{***}$)의 경우 젊은 연령층이 더욱 많이 행하는 경향을 보였다. 물론 대부분이 전통과 관계없이 외국에서 유입된 혼인의례들이므로 최근의 젊은층이 더 빈번히 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폐백은 30대가 많이 하였으며 50, 60대는 별로 행하지 않았다($x^2=9.87^*$). 경제적으로 풍요해진 사회변화와 관련된다 고 보인다. 혼례식절차와 비용결정방법에서는 연령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여전히 예전 풍습대로, 또 부모 위주로 혼례가 행해지는 우리 사회의 특징을 드러내주는 측면이다. 자녀들에게 우리나라 부모들이 갖는 무한책임의식과도 연관된다 고 본다. 평생 자녀 뒷바라지를 삶의 보람으로 여기는 부모세대와, 부모에게 의지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자녀와의 상호작용 결과이다. 이 점에서 계층간의 위화감과 자녀의 의존성은 사회차원에서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상례에서 연령차는 발견되지 않았다. 상례 자체가 여전히 개인보다는 가족/친족집단에 의하여 좌우되기 때문일 것이다. 다른 의례에 비해 가장 늦게 변하고 적게 변한 것이 상례였다. 그러므로 연령층에 따른 상례문화가 출현하지 않은 채 전통적 상례가 영안실로 자리를 옮겨 사회화된 점이 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사의 종류별 시행정도에 있어서는, 묘사의 시행정도가 연령에 따라 차이를 나타냈다. 20대와 60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30대와 50대가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x^2=10.68^*$). 20대는 젊은 연령이지만 결혼초기적용기에 집안의 풍속을 익히는 측면에서 묘사에 참여하는 정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른 제사의 경우는 연령별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제사 역시 개인의 의례가 아닌 집안의 의례로서의 속성을 지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기제사형식에도 연령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문중행사 참여정도는 50대를 제외하고는 연령이 많을수록 더 활발하게 참여하였다($x^2=13.75^{**}$). 50대는 10대와 같이 문중행사 참여가 가장 낮은 집단에 속했다. 종친회(화수회) 참가도 50대를 제외하고는 연령이 많은 집단이 참가 비율도 높았다($x^2=11.39^*$).

50대는 2, 30대의 수준으로 참가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나 특이하였다. 60대와 달리 이 연령층은 아직 생업에 매어 있는 데 연유하는 것이 아닌가 해석된다.

(2) 세시의례에서 먼저 설날떡국의 경우를 보면, 50대에서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x^2=14.72^{**}$). 복날 삼계탕을 먹고 수박을 먹은 경우는, 60대를 제외하고는 젊은층이 행하는 비율이 오히려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x^2=10.87^*$). 생활의 여유가 전통의 새로운 전승을 초래한 측면도 있지만 여기에는 마스크이나 상업주의도 일면 가세하였다고 보인다.

(3) 가족/친족의례에 대한 태도 고찰

가장 중요시하는 의례에서 연령차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x^2=70.80^{***}$). 돌잔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의 비율은 50대에서 높았고, 혼례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하는 사람의 비율은 20대에서 높았다. 상례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의 비율은 5, 60대에서 낮았으며 5, 60대는 기제사와 차례를 중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노령층은 자신들을 위한 행사보다 조상과 후손에게 더 의미를 두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희망묘제에 대한 생각은 연령차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 역시 전반적인 추세에 부응하여 변화하는 경향이었다. 제사방식에서, 외손봉사에 대한 태도는 10대가 더 우호적이었고, 절이나 성당 등에서 제사를 지내도록 하는 것에는 50대가 많은 응답을 하였다.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는 견해가 높은 20대는, 종교기관이 대행하는 것에 대하여도 부정적이어서($x^2=34.70^*$) 제사에 대한 전망과 같이 세대차를 드러냈다.

제사제도 전망에 대해서는 연령차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x^2=40.28^*$). 아들들 혹은 아들딸 간에 나누어 맡을 것이라는 견해가 10대에서 많았다. 특히 60대는 제사를 계속 장남이 맡을 것이라는 견해가 보다 많았고, 제사를 종교기관이 대행하게 되거나 없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세대차가 가장 많이 드러나는 항목이 제사인데 앞으로 이러한 의식 변화는 적지 않게 행동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고 추측된다. 그러나 이것이 기존의 사회 규범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일어날지 아니면

사회분위기를 크게 변화시키는 정도일지는 그 귀추가 주목된다.

2) 계층¹⁰⁾별 가족/친족의례 관행 및 태도 고찰

(1) 통과례

출산의례는, 계층이 높은 집단이 백일잔치를 많이 행하였다($\chi^2=8.56^*$). 돌잔치와 달리 백일잔치는 필수적인 출산의례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경제적인 여건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해석된다. 생일행사에서 계층차가 나타난 부분은 케익사용($\chi^2=28.35^{***}$), 외식($\chi^2=11.43^{**}$), 선물($\chi^2=15.47^{***}$) 항목이었다. 모두 일관되게 계층이 높을 때 많이 행하였다. 그리고 높은 계층에 속할수록 서구적인 생일행사를 따르는 경향이었다. 상층에서 서구적인 생활양식을 더 수용하는 우리나라 서구화의 성격이 반영되었다고 본다.

성인가의례에서는, 남성의 성인가 시점에 대한 견해에서만 계층차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chi^2=30.12^*$). 상층이 대학졸업, 취직, 군대제대 등의 시점을 성인가 시점이라고 보는 경향이 높았다. 일관된 특징을 발견하기는 어려우나 대체로 계층이 높은 경우, 사회적 과제를 수행해야 성인으로 여긴다고 해석된다.

혼인의례에서는 계층이 높은 집단이 혼인에 수반하는 의례가 많았다. 혼인의례는 많은 비용이 드는 의례라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이다. 계층이 높은 경우 청첩장($\chi^2=43.96^{***}$), 함잡이($\chi^2=10.76^{**}$), 야외촬영($\chi^2=27.16^{***}$), 폐백($\chi^2=9.16^*$), 피로연($\chi^2=29.53^{***}$), 신혼여행($\chi^2=86.07^{***}$)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특히 청첩장의 경우는 중, 상층에 비해 하층이 행하는 정도가 훨씬 적었다. 그러나 혼례절차와 비용결정 방법에서는 계층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통해 볼 때 확일적으로 보편화된 절차는 당연히 저소득층에게 크게 부담을 줄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상례에서는, 남자 상주의 검은양복($\chi^2=11.15^{**}$)을 계층이 높은 집단이 더 선호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상층이 서구지향적이라는 점과 일치한다.

이어서 제사의 실시정도를 보면, 기제사의 경우 중간층이 3, 4대까지 봉사하는 비율이 높았고, 상층의 경우 오히려 낮았다($\chi^2=6.21^*$). 즉 전통적인 의례수행은 상층보다 중간층이 더 보수적으로 지속시키고 있다. 그리고 기제사의 형식에서도 계층차는 밝혀졌다. 봉사범위는 상층집단일 때 부모 등 근친으로 축소되며, 오히려 계층이 낮은 집단이 4대봉사를 행하고 원친까지 봉사하는 보수적인 경향을 나타냈다($\chi^2=18.78^*$). 제사복장의 경우 한복복장은 중간계층에서, 양복정장은 상층에서, 평상복은 하층에서 많이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18.15^*$). 낮은 계층이 전통적이라는 사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일반적 제사형식은, 먼저 제기의 사용과 제사음식 마련 방법에서 계층차가 나타났다. 하층의 경우 제기를 따로 마련하는 경우가 적었고, 중간층의 경우는 물려받아 사용하는 경우가 적었다($\chi^2=18.86^*$). 제사음식 장만에서도 계층차가 나타났는데, 하층의 경우 제사음식을 모두 집에서 마련하는 경우가 많았다($\chi^2=20.46^{**}$). 의례의 사회화는 계층이 높은 집단이 주도하기 때문일 것이다. 문중행사 참여정도에서는 계층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문중행사는 계층보다 연령 변인이 좌우하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2) 세시의례는 계층이 높은 집단이 정월대보름의 풍습을 행하는 비율이 낮았다($\chi^2=8.77^*$). 전통의 계승은 모든 항목에서 일관성있게 상층에서 행하는 비율이 낮고, 오히려 하층에서 가장 많이 행하고 있다.

(3) 가족/친족의례에 대한 태도는 ‘중요시하는 의례’, ‘희망묘제’, ‘제사방식’ 등의 모든 항목에서 계층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가정의례에 대한 태도에는 계층차이가 없는데, 실천행동에서 계층차를 나타냈다. 흥미로운 점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태도문항에는 같은 대답을 하고, 실제로는 다르게 행동한다는 점이다. 즉 의식수준과 태도에서는 기존의 관념대로 이른바 통념대로 같은 반응을 보이나, 실제의 생활행동은 계층에 따라 차이가 드러났다. 일

10) 계층변수는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국졸·중졸·고졸·전문대졸을 단계별로 4점까지 부여하고, 150만원 이하, 151~300만원, 301만원 이상을 단계별로 3점까지 부여한 후 교육수준·소득수준점수를 합하여 상·중·하층을 구분하였다.

종의 문화지체로서 의식과 행동의 불일치현상 즉 생각은 보수적이나 행동은 현실에 맞추어 더 빨리 변한다는 점이 의례행동을 통해 확인된 것이다.

3) 성(性)별 가족/친족의례 관행과 태도 고찰

성인기의 시점에 대한 견해와 중요시하는 의례에서 성차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제사제도 전망에 대해서는 성차가 나타났다($\chi^2=27.49^{***}$). 남성들은 '계속 장남이 맡을 것'이라는 것과 '아들들끼리 나누어 맡을 것'이라는 전망을, 여성들은 '종교기관이 대행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였다. 서로 자신의 입장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전망하는 것이 특징이다. 과연 앞으로 제사담당에 대한 성별 긴장이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 주목되는데, 원하지 않은 현실을 직면하는 쪽에서 갈등을 갖게 된다면 페미니즘의 보편화에 따라 결국 남성이 갈등을 겪는 방향으로 당분간 변화할 것이 아닌가 예측된다.

희망묘제에 대해 성차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제사방식에 대해 성차가 나타났다($\chi^2=24.81^{***}$). '양자를 입양해서 지내겠다'는 응답과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는 양극단의 응답 모두 남성이 더 많았다. 그리고 '절, 성당에서 지내겠다'는 의견은 여성이 많았다. 여성은 의례의 사회화, 종교기관 등의 대행을 원하는 데 비해, 남성의 입장은 변화를 추구하는 개혁의 입장과 유교 전통을 고수하는 입장으로 양분되었다. 그런데 보수적인 남성은 상대적으로 점차 줄어들 것이므로 좀더 남녀가 평등한 방향으로 변하지 않을까 예측된다.

4) 종교별 가족/친족의례 관행과 태도 고찰

(1) 통과례

출산의례에서 종교별 차이는 주로 민간신앙 의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삼칠일간 가족원 외는 출입 안하는 출산 금기의례의 경우, 기독교인에 비해 천주교와 불교신자들이 더 많이 행하였다($\chi^2=22.02^{***}$). 삼신에게 비는 의례도, 불교신자들이 더 많이 행하였다($\chi^2=16.49^{**}$). 외갓집 첫나들이에 붉은 고추를 넣고가는 풍습 역시 불교인이 보다 많이 행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22.64^{***}$). 불교문화는 역사적으로 민간

신앙과 융합된 특징 때문이라고 보인다.

생일의례와 성인기의례는 종교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혼례에서도 종교별 차이가 별로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기독교와 천주교인들이 약혼식을 많이 하였으며, 불교신자의 경우 덜하였다($\chi^2=13.04^*$). 기독교인에 비하여, 천주교인과 불교인은 합잡이를 많이 하였다($\chi^2=17.90^{**}$). 대체로 기독교, 천주교신자가 서구적이라면, 불교신자는 보다 전통적인 경향이라는 점과 일치한다.

상례에서는 먼저 상복에 종교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기독교, 천주교신자들이 서구사회의 상복인 검은 양복을 착용하는 경우가 더 많았으며, 종교가 없는 집단은 전통 유교식 상복을 많이 착용하였고, 불교신자들은 중간수준을 나타냈다. 종교가 없는 집단은 검은상복을 선호하지 않는($\chi^2=21.56^{***}$) 반면에 삼베상복을 많이 입었다($\chi^2=19.22^{***}$).

여자상주의 소복은, 종교가 없는 집단이 가장 많이 입었다($\chi^2=11.54^*$). 장례장소에서도 종교차가 발견되었다($\chi^2=24.43^*$). 천주교신자의 경우 병원영안실에서 장례를 많이 치르고, 불교신자는 자택에서 장례를 많이 치렀다. 일관된 현상으로서, 종교가 없는 집단과 불교인들은 전통적인 경향을 보이고, 기독교·천주교 집단은 서구적인 변화와 새로운 문물을 더 수용하는 경향이었다.

제사의례는, 종교별 차이가 제사의 모든 항목에서 분명하게 나타났다. 기독교, 천주교인보다 불교신자가 많이 참여하였다($\chi^2=24.47^{***}$). 제사가 허용된 천주교에서도 묘사참여가 적은 것은, 이들이 문중행사 참여를 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즉 묘사는 제사의 의미보다 문중행사로서의 의미를 갖기 때문일 것이다.

차례($\chi^2=57.40^{***}$)와 기제사($\chi^2=3022^{***}$)를 행하는 비율도, 기독교인들이 낮고, 천주교와 불교신자들은 높은 편이었다. 제사의 실시형식에 있어서도 종교별 차이가 나타났다($\chi^2=353.62^{***}$). 기독교인은 추도식을 하거나, 제사를 지내지 않는 비율이 높았다. 천주교인은 천주교식으로 제사를 지낸 비율이 높았고, 불교인은 전통유교식 제사를 치렀고, 절제사 비율도 높았다. 종교가 없는 집단은 간소한 유교식 제사의 비

율이 높았다. 요약하면 각 종교별로 고유한 제사형식을 따르는 경향이지만, 기독교인은 제사 자체를 거부하는 경향이었고, 불교인이 전통형태의 제사를 고수하는 경향이였다.

종교차는, 제사시간과 복장에서도 나타났다. 기제사 시간을 보면, 기독교신자들은 '가족들이 모일 수 있는 시간'에, 천주교신자들은 '돌아가신 전날 해진 뒤'에, 불교와 종교가 없는 집단은 '돌아가신 당일 이른 새벽(밤12시 이후)'에 제사하는 경우가 많았다($\chi^2=44.95^{**}$). 제사복장은 기독교인의 경우 평상복, 불교인의 경우 평상복과 한복정장을, 종교가 없는 집단은 한복정장을 입는 경우가 많았다($\chi^2=33.35^{**}$).

일반적 제사형식에서도, 종교차가 나타났다. 제기의 사용($\chi^2=56.28^{***}$)에서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기독교인에게서 나타난다. 기독교인들은 평상시 그릇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불교신자들은 제기를 물려받거나 따로 마련하는 경우가 높다. 신위나 지방의 사용에 있어서도 종교차가 나타났다($\chi^2=71.13^{***}$). 천주교인은 사진을 많이 사용하였다. 절 올리는 사람에 있어서도 종교차가 나타났다($\chi^2=134.83^{***}$). 불교인의 경우 남자와 며느리들만이 절을 올리는 전통적, 부계중심적 제사형식을 고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중행사 참여정도에서도 종교별 차이가 있었다. 기독교인의 경우는 문중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불교인은 문중행사에 많이 참석하였다($\chi^2=31.35^{***}$). 기독교나 천주교인은 종친회에 잘 참여하지 않았고, 불교나 종교가 없는 집단이 많이 참여하였다($\chi^2=12.82^*$). 시제 역시 불교나 종교가 없는 집단이 많이 참여하였다($\chi^2=43.82^{***}$). 족보발간의 경우 천주교인들은 별로 참여하지 않았고, 불교와 기타종교 신자들이 많이 참여하였다($\chi^2=10.79^*$). 집안계 모임에는 기독교, 천주교인들은 별로 참여하지 않았고, 불교신자들은 많이 참여하였다($\chi^2=10.30^*$).

(2) 세시의례에서, 기독교인들은 추석에 송편을 빚는 세시전통을 별로 행하지 않았고, 천주교인들은 많이 행하였다($\chi^2=11.58^*$). 기독교인과 천주교인들은 동지팔죽을 먹는 풍습을 별로 행하지 않았고, 불교인들은 많이 행하였다($\chi^2=17.14^{**}$).

(3) 가족/친족의례에 대한 태도

중요시하는 의례에서 종교차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chi^2=53.70^{**}$). 대학입학을 중요시하는 사람의 비율은, 불교인에게서 높았고 천주교인은 적었다. 혼례를 중시하는 사람의 비율은, 종교가 없는 집단에서 높았다. 상례는 천주교인들이 중시하였고, 기제사는 천주교와 불교인들이 중시하였다.

희망묘제에서도 종교차는 나타났다($\chi^2=81.26^{***}$). 기독교·천주교인들은 종교기관묘지를 선호하였고, 화장에 대해 부정적이였다. 불교인은 종교기관묘지에 대해 부정적이였다. 현재 해당 종교의 의례수행 방향에 상응하여 응답하였다. 제사방식에서는, 외손봉사에 대한 희망비율은 기독교인이 낮았다. 절, 성당 등에서의 제사에서 천주교인과 불교인이 많은 응답을 보였고,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는 응답은 기독교에서 많이 나왔다($\chi^2=88.65^{***}$).

제사제도 전망에서는, 천주교인들은 종교기관에서 지내는 것에 긍정적이였고, 불교인들은 장남이 계속 제사를 맡을 것이라는 견해를 많이 나타냈다. 그러므로 제사가 없어질 것이라는 응답은 불교인들에게서 적게 나타났다. 종교기관의 제사대행에 대해 낮은 응답을 한 사람들은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었다($\chi^2=43.39^{**}$). 각자 자신의 종교 입장에 근거하여 응답한다고 보인다.

이제까지의 변인별 분석을 종합해 보면 가정의례는 연령에 따라 가장 큰 차이가 드러났다. 대체로 전통적인 가정의례에서 서구적인 의례형식으로 변화하는 전반적인 경향을 젊은층이 주도한다고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연령 다음으로 차이를 드러내는 변인은 의례의 특성상 종교변인이었다. 기독교의 증가가 오늘날 가정의례의 변화를 주도한다고 할 수 있겠고, 특히 그 영향력이 제사의례에 집중되어 반영되었다. 기독교와 가톨릭신자들의 주도로 가정의례가 서구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서구적인 의례를 지향하고 소비적인 의례를 선호하는 것은 계층이 높은 집단이었다. 그리고 의례행동은, 태도 차원과 달리 계층에 따라 다르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성별 편차는 미래의 가정의례에 대한 전망 항목 이외에서는 별로 드러나지 않았다. 오늘날 가족생활의

역할과 권리, 의사소통 면에서 갈등이 높은 현실에 비해 의례실태 조사결과에서는 성별 차이가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V. 요약 및 결론

이 연구는 도시가족/친족의례는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서울에 거주하는 20대부터 60대까지의 남녀 71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양적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질적 조사를 병행하여 분석과 논의에 반영하였다. 조사 내용은 가족 및 친족관련 가치관, 가족관계 변화에 대한 인식, 이혼·재혼에 대한 태도, 사회적 관계망 구조와 함께 조사하였다. 그리하여 통과의례와 세시의례에 대한 실태와 태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먼저 유교문화 이전부터 지속되었던 '신성성'을 지닌 가정의례의 민간신앙 요소는 산업화과정에서 급격히 소멸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실태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가족/친족의례의 '서구화'와 '사회화', '상업주의화'가 진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의례로 여겨지는 혼례는, 여전히 부모 주도로 혼례비용을 결정하는 전통 역시 그대로 지속되어 부부중심의 가족관계라고 하기보다는 강한 부모자녀의 유대와 강한 혈연지향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이러한 실태는 차례와 기제사가 여전히 보편적인 생활의례로 지속되는 점과 일치하였다. 그러나 기제사의 참석 범위는 근친으로 축소되어 친족 및 사회관계망 범위가 축소되는 경향과 일치하였다(옥선화 외, 1998:175).

그리고 의례의 서구화는, 세 유형으로 나타났다. 첫째는, 검은 양복을 상복으로 착용하는 것과 같이 단순히 의례 외형만 서구식으로 변하였을뿐 의례의 기본 골격은 전통의 부계적인 성격 그대로인 경우가 있다. 둘째는 이와 달리 전통의례가 서구식으로 대체된 예가 있다. 또 세번째는, 과거의 전통의례에는 전혀 없던 새로운 서구식 의례가 이식된 경우이다. 의례의 장소만 가정에서 사회로 옮겨졌을 뿐 실제 의례의 성격은 전통적인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예

로서, 영안실 상례와 혼례의 폐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떡을 차렸던 생일상이 케익 축하로 바뀐 것은 서구적인 것으로 대체된 양상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서구식 의례가 새로 부가된 유형은 생일선물, 야외촬영, 신혼여행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제사음식의 구입은 물론, 가정의례의 '사회화'에 따라 가정 밖으로 옮겨진 모든 의례절차는 당연히 '상업주의화'에 영향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종교기관에 의해 이루어진 '가정의례의 대행' 역시 종교단체별로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의례의 서구화는 젊은 연령층과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이 주도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젊은 층이 선호하는 혼례식의 다양한 절차와 생일문화, 세시의례의 계절식 상품화 등 앞으로 상업주의의 영향을 더 받으리라 예상된다.

물론 기제사 형식이나, 상례, 문중행사, 희망 묘제 등의 의례에서는 가족/친족단위의 의례로서 개인적인 세대 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유독 세대가 두드러진 항목은 제사제도에 대한 전망에서였다. 고령층이 장남 제사를 고수한다면, 젊은층은 자녀의 공동참여와 외손봉사 그리고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까지 미치었다. 조상은 물론 후손까지 전통적인 가치로 배려하는 고연령층과, 당사자의 입장만 내세우는 젊은 연령층이 어떻게 조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사회의 주요한 과제 중의 하나라고 하겠다. 격변기에 처한 채 '성인기'에 대한 정의조차 합의하지 못한 '성인기의례의 아노미' 상황에서, 앞으로 세대 차이를 줄이려면 다른 세대에 대한 서로간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계층별 분석에서는, 계층이 높은 집단이 백일잔치를 더 많이 행하고 혼례의 다양한 절차를 행하고, 또 서구식의 검은 상복을 선호하면서 제사를 지내는 친족의 범위는 가장 축소되었다는 점에서 계층 차이를 드러냈다. 반면 하층집단에서는, 의례의 사회화 정도가 가장 낮았으며 제사대상 범위가 가장 넓어서 대조적이었다. 요컨대 상층이 서구의 생활양식을 지향한다면 하층은 전통적인 생활방식을 고수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차이는 의식이나 태도 수준의

차이가 아니라, 실제 의례 행동에서의 차이여서 우리 사회가 계층별로 가정의례 양식이 이질화되었다는 점이 주목되었다. 그런데 사회변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행동이 먼저 변화하고 태도·규범·가치가 후에 변화하는 것이지만, 남아선호사상이나 이혼과 재혼에 대한 태도에서는 이와 반대의 결과를 나타냈다. 남아선호사상에 대한 지지는 낮지만 남아출산율은 여전히 높았으며, 이혼·재혼에 대해 허용적 태도를 보이면서도 구체적 상황에서는 특히 자녀와 연관된 항목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처럼 가치 영역이 행동변화에 비하여 앞서간 측면도 공동조사 결과 밝혀졌는데, 의례행동만은 태도보다 행동이 먼저 변한다는 일반론에 부응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실태분석 결과 특징적인 점의 하나는, 가정의례에서 성별로 갈등이 높을 것이라는 통념과 달리 유의미하게 나타난 성별 차이의 항목이 몇 개 안 된다는 사실이다. 의례실태라는 것이 가족 내 남녀간의 합의 이전에, 이미 사회적으로 합의된 가족/친족 의례이기 때문일까, 또는 의례라는 것을 이미 내면화한 기혼남녀를 주요 대상으로 하여 조사한 것에 연유하는 것일까. 다양하게 해석해 볼 수 있으나, 좀더 정교한 분석이 요청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성별 차이는 의례행동보다 오히려 태도에서 차이가 드러났다. 즉 남성은 장남과 아들이 앞으로도 제사를 지내리라고 전망한 데 비해, 여성은 종교기관의 대행으로 사회화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런데 앞으로 생활현장에서 의례의 상징적 대표인 남성 가장과, 실제로 의례를 준비하는 여성 중 어느 편이 더 의례변화에 영향력을 미칠 것인지는 앞으로의 추이를 고찰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직계가족의식이 약화하면서 부부중심의식으로 변화하는 추세와 연관시켜 볼 때 당분간 여성의 영향력이 증대되지 않을까 예측된다.

종교별 차이는 특히 상례와 제례에서 확인되었는데, 전반적으로 기독교와 가톨릭교 신자는 서구적인 의례 수용에 적극적이었고, 종교가 없거나 불교신자인 경우는 전통적 의례를 고수하는 경향이었다. 이러한 태도는 회당묘제와 제사에 대한 전망에서도 각

종교의 입장에 따라 일관된 편차를 드러냈다. 이러한 종교집단간의 차이를 갈등이 아닌 조화, 즉 다양성의 공존으로 수용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가는 것이 필요한 단계라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도시지역의 가족/친족의례는 우리 사회의 부모자녀관계의 강한 애착과 부계가족의 혈연주의를 집단적으로 표상화한다고 볼 수 있다. 후기 산업사회로 옮겨가는 오늘의 시점에서 바라볼 때, 더욱 고향에 회귀하고 싶은 뿌리 의식은 앞으로도 민족 대이동의 차례행렬을 지속시킬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연령과 계층과 종교집단의 영향력을 종합해 볼 때 서구식의 의례가 보편화되고 의례의 사회화와 상업주의화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남녀차별적인 의례는 젊은 연령층의 영향력에 따라 감소한다면, 차츰 양성 평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변화될 것으로 보이며, 종교기관의 가정의례 대행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 예측된다. 또한 국제화된 시대에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라도 가족/친족의 전통의례문화에 대한 세시풍속 등의 복원과 고양은 한층 증가하리라고 예상되므로 가정의례는 미래 사회에도 여전히 나름대로의 사회통합의 기능을 유지해 갈 것이라고 본다.

이 연구는 도시지역 가정의례 전반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심층 논의를 피하고자 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 실태분석 결과만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데는 한계를 갖고 있으므로, 앞으로 의례에 대한 별도의 질적연구와 농촌지역과의 비교, 또 세부 주제별 접근이나 지역적 의례문화의 특징을 밝히는 보다 심화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 문헌】

- 고영진(1995). *조선중기 예학사상사*. 서울: 한길사.
 김두현(1949). *한국가족제도연구*. 서울: 서울대출판부.
 김도란(1994). *한국사회의 혼인거래관행에 대한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김성일(1996). *건전가정의례,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 보건복지포럼 12월호, 67-73.

- 김시덕(1995). 일생의례의 역사. 임재해·한양명 엮음. 한국민속사입문. 서울: 지식산업사.
- 박선웅(1999). 혼례의 문화적 모순과 상품화. 가족과 문화 11(1), 79-101.
- 박혜인(1990). 가족관계에 나타난 한국인의 혈연의 식·별진면의 혼상제례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2, 103-134.
- 박혜인(2001a). 가정의례의 변화와 21세기의 지향 모색. 한국가족복지학회지 5(1).
- 박혜인(2001b). 출산의례, 관례, 혼례, 회갑. 한국민속의 세계. 서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 송도영(1995). 의례공간 소비의 '키취'화: 예식장. 한국문화인류학 28, 319-350.
- 안호용(1993). 유교의례의 보편화와 전통사회의 구조화. 유교적 전통사회의 구조와 특성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연구논총 93-14.
- 옥선화·김주희·박혜인·신화용·한경혜·고선주(1998). 가족/친족 구조의 해체와 재구성 I: 서울시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6(11), 157-182.
- 이재룡(1995). 조선, 예의 사상에서 법의 통치까지. 서울: 예문서원.
- 이필도(1999). 바람직한 장묘문화정착을 위한 제도적 접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철수(1995). 옛무덤의 사회사. 서울: 웅진출판.
- 장철수(1984). 한국전통사회의 관혼상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장현섭(1996). 현대 한국인의 상례관행과 개선방안. 가족학논집 8.
- 전경수(1977). 진도 하사미의 의례생활: 조상숭배의례의 생태적 기능을 중심으로. 인류학논집 3, 35-74.
- 정용선·김경연·김득성(1995). 혼수의 사회적 의미 및 혼수가 결혼생활에 미치는 영향: 사회교환이론적 접근. 대한가정학회지 33(6), 115-136.
- 조관연(1997). 한국 장례문화의 변화: 두 종합병원 영안실을 중심으로. 국제한국학회지 2.
- 조관연(1998). 산업화 이후를 중심으로 바라 본 한국의 예식문화 변화. 국제한국학회지 3.
- 최재석(1987). 한국가족제도사연구. 서울: 일지사.
- 최준식(1996). 조상숭배가 전통사회에서 갖는 두 세가지 의미에 대해-사회적인 설명과 종교학적인 설명을 중심으로-. 국제한국학회지 1.
- Taylor, R.B.(1969). *Cultural ways: A compact introduction to cultural anthropology*. Boston: Allyn & Bacon.
- Turner, V.W.(1969). *The ritual process: Structure and anti structure*. Chicago: Aldine.
- van Gennep, A.(1960). *The rites of passag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